



미 증시, 위험 선호 심리 개선 속 AI 기술주 랠리에 힘입어 상승 마감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6일(수) 미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예상치 상회 등 견조한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친 트럼프 인사로의 연준의장 교체 기대감, AI 기술주 및 반도체 랠리 등에 힘입어 위험선호 심리 전반적으로 개선된 결과 3대지수 상승 마감 (다우 +0.67%, S&P500 +0.69%, 나스닥 +0.82%)

금리 인하 기대, AI 랠리에 힘입어 자산 시장 내 위험 자산 심리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 실제로, 시장 변동성 지수인 VIX 지수는 지난 20일(26.4pt) 대비 35% 하락한 17.2pt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 S&P500도 금주 3거래일 동안 +3.2% 상승하며 11월 이후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 또한,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대변하는 비트 코인 가격도 하락세를 멈추고 재차 9만 달러선을 상회했다는 점도 시장 심리 안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

여기에 구글 TPU vs 엔비디아 GPU 논쟁과 별개로 AI 산업 확장에 대한 시장 의구심이 완화되며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도 약화되는 흐름. 이 날 알파벳(-1.0%)은 숨고르기 흐름을 보였으나, 엔비디아(+1.3%), AMD(+3.9%) 등이 전일 하락 이후 재차 반등했다는 점이 AI 산업 전반에 걸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함을 방증.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점증하고 있는 점이 증시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 이 날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11월 16일~22일, 21.6만 건 vs 예상치 22.5만 건), 9월 내구재 주문(MoM, 0.5% vs 예상치 0.3%)은 예상치를 상회하며 노동시장과 실물 경제 시장이 견조하다는 점을 보여줌. 다만, 연준 베이지북(10월~11월 17일까지 경제 동향)에 따르면 미국 내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지난 보고서 발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다고 적시되고 있으나, 고용 시장 냉각 조짐, K자형 소비 양극화 등을 언급한 점은 금리 인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요인.

또한, 금리 인하를 지향하는 친(親) 트럼프 인사인 케빈 해쉬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 특히, 금리 인하를 지향하는 케빈 해쉬으로의 의장 교체는 올해를 지나 내년도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도 확대, 이를 반영하여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현재 4%선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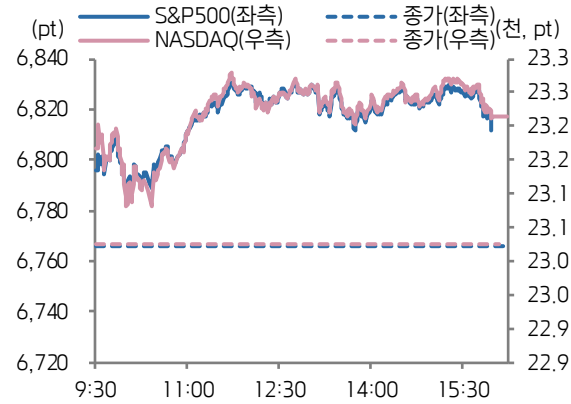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 AI 랠리, 당국의 원달러 환율 개입 기대 등 3가지 요인이 맞물린 결과 외국인, 기관 양 수급 주체가 모두 매수세로 전환함에 따라 양 지수는 상승 마감. 특히, 업종별로는 2차전지(리튬가격 반등), 바이오(금리 인하 수혜) 업종이 큰 폭 상승한 점이 특징적 (코스피 +2.67%, 코스닥 +2.49%).

금일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1.3%), 마이크론(+2.6%)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2.7%) 급등세를 반영하며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자금 유입에 힘입어 코스피 4,000pt선을 재도달할 것으로 전망.

한편, 12월 2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다가올수록 세제 개편안 등 정부 정책 관련 뉴스플로우가 지속. 특히, 국내 주식시장 관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배당소득분리과세 최고세율 논의는 당초 25%안으로 잠정 합의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최근 정부는 30%안 절충안 혹은 대주주 30% and 일반주주 25%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연말로 갈수록 대내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증시 민감도 높아질 수 있다는 국면임을 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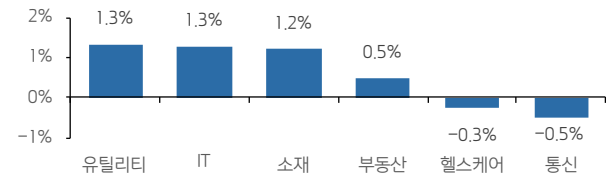
시, 배당소득분리과세, 자사주 소각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개편 내용에 주목해볼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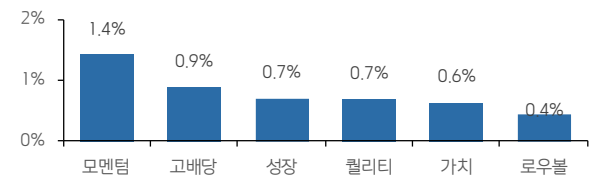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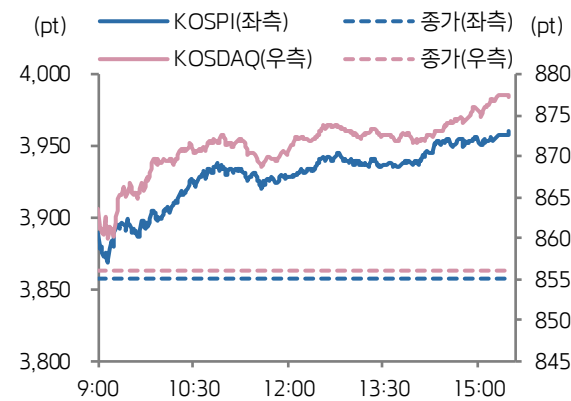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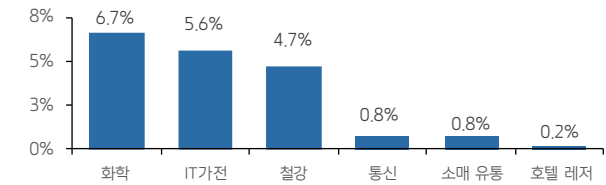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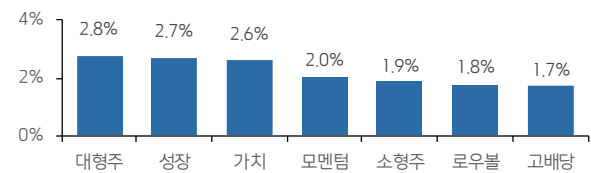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77.55	+0.21%	+11.34%	GM	72.81	+0.04%	+37.82%
마이크로소프트	485.50	+1.78%	+16.03%	일라이릴리	1,104.34	-0.5%	+44.12%
알파벳	319.95	-1.08%	+69.57%	월마트	109.10	+1.96%	+21.66%
메타	633.70	-0.4%	+8.48%	JP모건	307.64	+1.53%	+31.06%
아마존	229.16	-0.22%	+4.45%	엑손모빌	114.77	+0.23%	+10.61%
테슬라	426.58	+1.71%	+5.63%	세브론	149.51	+0.66%	+8.01%
엔비디아	180.26	+1.37%	+34.26%	제너럴일렉트릭	109.10	+2%	+21.7%
브로드컴	397.57	+3.26%	+72.7%	캐터필러	573.73	+1.26%	+60.55%
AMD	214.24	+3.93%	+77.37%	보잉	186.92	+2.46%	+5.6%
마이크론	230.26	+2.55%	+174.38%	넥스트에라	85.54	+0.8%	+2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3,960.87	+2.67%	+65.07%	USD/KRW	1,468.30	-0.07%	-0.27%
코스피200	559.37	+2.71%	+76%	달러 지수	99.59	-0.08%	-8.21%
코스닥	877.32	+2.49%	+29.36%	EUR/USD	1.16	+0.21%	+11.98%
코스닥150	1,525.13	+2.74%	+34.99%	USD/CNH	7.07	-0.18%	-3.66%
S&P500	6,812.61	+0.69%	+15.83%	USD/JPY	156.46	+0.26%	-0.47%
NASDAQ	23,214.69	+0.82%	+20.22%	채권시장			
다우	47,427.12	+0.67%	+11.48%	가격	DTD(bp)	YTD(bp)	
VIX	17.13	-7.7%	-1.27%	국고채 3년	2.895	-0.9bp	+30bp
러셀2000	2,486.12	+0.82%	+11.48%	국고채 10년	3.250	-1.5bp	+37.9bp
필라. 반도체	6,899.46	+2.76%	+38.55%	미국 국채 2년	3.477	+1.8bp	-76.5bp
다우 운송	16,531.12	+0.79%	+4%	미국 국채 10년	3.992	-0.4bp	-57.7bp
상해종합	3,864.18	-0.15%	+15.29%	미국 국채 30년	4.640	-0.9bp	-14.1bp
항생 H	9,162.37	+0.04%	+25.69%	독일 국채 10년	2.671	-0.1bp	+30.4bp
인도 SENSEX	85,609.51	+1.21%	+9.56%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655.58	+1.47%	+15.51%	WTI	58.65	+1.21%	-13.6%
MSCI 전세계 지수	991.06	+0.89%	+17.8%	브렌트유	63.13	+1.04%	-15.42%
MSCI DM 지수	4,334.46	+0.89%	+16.9%	금	4,202.30	+0.6%	+50.56%
MSCI EM 지수	1,353.84	+0.87%	+25.88%	은	52.92	+3.83%	+80.96%
MSCI 한국 ETF	91.55	+1.96%	+79.9%	구리	510.45	+2.03%	+26.77%
디지털화폐				BDI	2,309.00	+0.61%	+131.59%
비트코인	89,924.00	+3.36%	-4.04%	옥수수	446.25	+1.83%	-1.98%
이더리움	3,020.37	+3.07%	-9.75%	밀	541.00	+0.32%	-11.85%
				대두	1,132.25	+0.67%	+9.53%
				커피	379.70	-0.94%	+35.9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26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